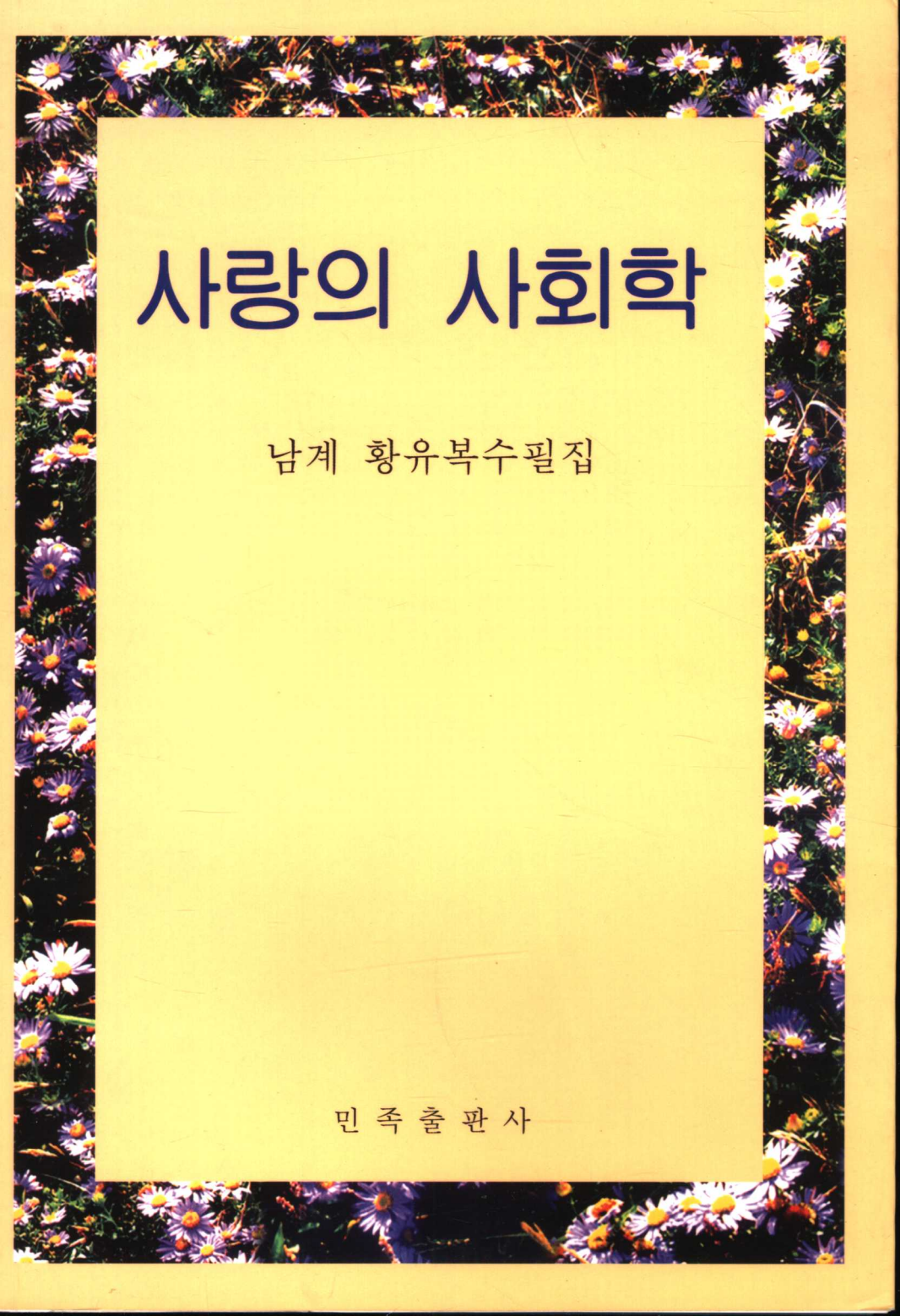




사랑의 사회학

남계 황유복수필집

민족출판사

남 / 계 / 황 / 유 / 복 / 수 / 필 / 집

사랑의 사회학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爱的社会学/黄有福著. —北京:民族出版社,
2005. 10
ISBN 7-105-07296-2

I. 爱... II. 黄... III. 散文—作品集—中国—
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6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5)第118769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e56.com.cn>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5年10月第1版 2005年10月北京第1次印刷

开本:880毫米×1230毫米 1/32 印张:10 字数:240千字

印数:001-800册 定价:23.00元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64228211; 发行部电话:64211734)



황유복(黃有福)

호 남계, 필명 남호손.

- 1943년 2월 길림성 영길현에서 출생.
- 1961. 9—1966. 6 중앙민족대학교 역사학부에서 민족사 전공.
- 1987. 9—1988. 12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환교수.
- 현재
중앙민족대학교 민족학과 사회학학원
박사생 지도교수
중앙민족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소장
중국조선(한국)사연구회 회장
- 주요저서:
《봉사도(한문)》,
《중국고대북방민족문화사(한문)》(공저),
《중국 조선족 사회와 문화의 연구》 등
저서 28권 출간.
- 논문으로 《The History Migration of Koreans into China》 등 130여편이 있음.

남계수필은 우리 문학이 력사학이나 철학이나 인류학이나 기타 학문의 종합적인 안받침과 지원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있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고 그러한 림점 학문들이 어떻게 림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우리 문학을 보완해주고 부추겨주고있는지를 현장감있게 실천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이웃 학문에서 쓰는 생소한 전용어를 교묘하게 문학언어에 접목시켜 보다 기발하고 생동감 넘치는 표현을 이끌어내고 평범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그속에 력사적인 성찰과 철학적인 사고에 의해 추출된 주옥같은 론리들을 삽입시켜 일상의 이야기들이 일시에 빛을 발하게 하는 남계의 능란하고 세련된 글솜씨는 타인의 모방마저 불가능케 하고있어 나같은 문인들의 마음을 무겁고 긴장하게 압박하기까지 한다.

남계수필의 매력은 학문으로 수필을 포장했거나 학문을 수필속에 용해시킨 점에 있는것이 아니라 수필 그자체를 아예 학문과 동일시한 점에 있다. 그래서 남계수필은 문학수필인 동시에 학문이고 학문인 동시에 또한 문학수필이기도 하다.

—김재국(소설가)

□작가의 말

수필문학의 숲을 산책하다

첫사랑은, 그것이 이루지 못한것일수록 더욱 더 애뜻한 기억으로 승화되어 가슴속에 영원히 뿌리를 튼다. 나의 문학사랑도 그렇다.

소학교 5학년때 처음으로 작문을 쓰게 되었다. 선생님이 《커서 무엇을 할것인가?》라는 내용으로 글을 쓰라고 했다. 그때 나는 학비를 벌기 위하여 쌍하진 북문거리의 신문배달을 맡아하였다. 신문을 받아서 이집저집 배달하면서 신문기사를 읽을 시간은 없지만 신문에 실린 사진은 대강 훑쳐볼수 있었다. 그때 마침 신문에서 북경 천안문광장사진을 본적이 있어 나는 《커서 축로공(筑路工)이 될거예요》라는 제목으로 작문을 썼다. 커서 길을 닦는 노동자가 되어 고향의 진흙길을 수도 북경의 천안문광장이나 장안가와 같이 넓고도 평탄한 아스팔트길로 만들것이라는 내용이였다. 신문배달을 하면서 비오는 날 흙탕길을 걷는 불편함때문에 그런 글을 쓰지 않았나싶다.

물론 나는 후에 축로공으로 되지도 않았고 한치의 길도 닦지 않았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작문종합평가 시간에 나의 작문을 잘 썼다고 칭찬하신후부터 나는 작문쓰기를 좋아했고 소설책을 열심

히 읽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한마디 칭찬이 나의 인생의 방향타를 문학사랑으로 돌려놓은 것이었다.

길림시조선족중학교 초중부에 다니면서 나는 거의 소설책에 묻혀 살다시피 했다. 그때 길림조중에는 규모가 꽤나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나는 학교의 수업시간외에는 거의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다. 로씨야와 서구의 명작들을 탐독했고 조선의 소설도 닥치는대로 읽었다. 그런데 1957년에 중국을 휩쓴 《반우파투쟁》은 나의 문학꿈을 산산이 깨뜨려버렸다. 내가 존경하던 문학담당선생님이 《우파》로 몰려 교단에서 몰려났고 새 학기 문학교과서는 문학작품들보다 정론문 중심으로 편찬되어있었다. 그때 나는 중국에서 문학은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고중에 진학하면서 나는 문학사랑을 접고 대학의 역사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의 첫 시작품이 문학과의 결별을 결심했을 때 발표되었다. 1958년 5월, 길림시조선족문화관에서 편집, 발행한 《송화강》잡지 창간호에 나의 처녀작인 시가 발표되었던 것이다. 학교의 벽신문을 위해 쓴 것인데 잡지사 편집이 가져다 발표한 것이었다. 잡지를 받아보고 나는 쓴웃음을 짓고말았다.

1961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대로 북경에 있는 중앙민족대학 역사학부에 입학할수 있었다. 나는 역사학도답게 누렇게 바래진 고서더미에 묻혀 옛 학자들이 남긴 사료를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데 문학에 등을 돌리고 역사학도의 길을 걷던 나는 그만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고말았다.

대학 2학년이 마감될무렵, 나는 첫사랑에 빠지면서 련인에게 주는 련정의 시를 쓰기 시작했다. 쥬피트의 금화살을 맞아 정열적인 사랑에 빠져버린 나젊은 련인의 《눈동자에 반짝이는 불꽃》을

담아낼수 있는 《그릇》이 시외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2년 남짓한 사랑의 려정을 거치면서 나는 200수에 가까운 서정시를 썼다. 나의 첫사랑은 한족출신의 처녀였기때문에 그 시들은 한문으로 쓴 자유시거나 룰시 혹은 사(詞)였다. 《문화대혁명》초기 나는 홍위병들의 비판대상이 되어 일기책을 포함한 글 원고들을 압수당한적이 있다. 나의 시도 그때의 수난을 면치 못하고 영원속으로 사라지고말았다. 《문화대혁명》의 악몽에서 깨어난 나는 내가 즐겨읽던 책의 갈피속에서 10여편의 시원고를 찾아내었는데 그중 몇수는 후날 《도라지》에 실린 수필(《옥년이와 봇나무》, 《내가 만들었던 눈사람》)에 인용되어 발표되었다.

1968년 나는 북경군구 공병(工程兵)부대에 내려가 《사상개조》를 하게 되었다. 그때 내가 제일 싫어했던 일가운데 하나가 한달에 한번씩 런대 벽보란에 무슨 《심득(心得)》이나 《대비판》의 글을 써내는것이였다. 쓰기는 싫고 그렇다고 쓰지 않아도 안되고 해서 나는 글대신 시를 써서 벽보에 제출하곤 하였다. 그런데 한번은 런대에 취재나온 《해방군보》기자가 벽보에 나붙은 나의 시를 가져다 《해방군보》에 발표하였다. 이렇게 나는 두번이나 본의 아니게 시를 발표한셈이다.

1971년, 대학에서 다시 학생모집을 시작하면서 나는 중앙민족대학내에 조선어문학과를 설립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1972년 1월부터 7월까지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학부에 가서 연수를 마치고 9월에 조선어문전공 1기생들을 모집하여 내가 조선문학강의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강의를 잘 못한 탓인지 1기생들가운데서 후날 문학가가 된 사람은 없다. 여하튼 내가 대학에서 담당했던 첫 강의과목이 문학이였으니 나도 한때 문학에 귀의했던셈이다.

1기생들이 졸업할 때 나는 한명의 영재라도 더 학교에 남기기 위해 내가 참여해 만들고 대학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담당했던 조선어학과를 떠나 민족학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나는 문학에 대한 사랑을 조선족에 대한 사랑으로 바꾸어 조선족연구에 몰두하였다.

《10년 동란》으로 정의된 한 시대가 마침표를 찍으면서 나는 새장에서 풀려난 작은 새가 푸른 하늘과 록음이 우거진 숲들을 자유로이 날아예듯이 중국북방민족연구학자라는 이름을 하고 우리 대학은 물론 미국, 소련 등 7개 나라와 지구의 대학들을 쫓아 다니면서 강의와 연구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나는 문학지들의 부탁을 받고 우리 민족 전통문화에 대한 산문들을 《도라지》, 《장백산》, 《송화강》 등 잡지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산문들은 모두 만자좌우의 편폭이어서 수필보다는 논문에 가까운 것들이었다.

《서유기》에 손오공과 여래부처가 힘을 겨루는 장면이 있다. 손오공은 72가지로 변할수 있는 재간과 한번 뛰어오르면 10만 8,000리를 달려나갈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결국은 여래부처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중국의 대학에서 인문사회학분야의 교수들이 도달할수 있는 정상인 박사지도교수까지 되었다하더라도 결국 문학의 《손바닥》을 벗어날수 없게끔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던것 같다.

2001년 봄날, 개오동나무에 연보라색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날 때 《도라지》잡지사의 김홍란주필이 나의 연구실을 찾아왔다. 《도라지》잡지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관심과 도움을 요청해왔다. 나의 제자가 나의 고향에서 제일 적은(다른 비슷한 잡지들의 4분의 1도 안되는) 자금과 제일 적은 인력(단 2명의 편집)으로 제

일 알뜰하게 순수문학지를 꾸려가고있는데 그들이 이제 생존한게
에까지 왔다는것이다. 나는 내 재간과 능력의 상한선을 재보지도
않고 《그래 내 힘껏 도와줄테니 계속 노력해라.》고 대답했다.

김홍란수필은 길림으로 돌아가자마자 나에게 원고예약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문학인이 아니기때문에 글쓰기만은 사양했다. 그
러나 김주필의 생각은 달랐다. 소설이나 시는 몰라도 수필만은
잘 쓸수 있을것이라고 고집했다. 후에 문학인들과의 접촉에서 알
게 된 사실이지만 김홍란은 원고청탁의 귀재라고 한다. 일단 누
구의 원고를 확보하기로 했으면 끈질기게 부탁을 해오기때문에
철석간장이 아닌이상 그의 진심에 감동되어 아무리 바쁘더라도
원고를 보낸다는것이다. 《도라지》가 내실이 있는 문학지로 될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김주필의 원고확보능력이 아닌가싶다.

여하튼 나는 그 바쁜 와중에 《선택》이라는 수필을 써서 보
내주었다. 《도라지》 2001년 제3호에 발표되었는데 좀 사치스러
운 표현을 쓴다면 나의 수필 《데뷔작품》인것이다. 그때 내 나이
가 58세였다. 그다음 김주필의 원고청탁은 좀 이색적이였다. 나
를 위해 《인생수필코너》를 설치하겠다는것이다. 처음 수필을 발
표한 아마추어치고는 너무나 파격적인 대우였다. 그러나 좀 더
차분히 생각해보면 나이가 나이인만큼 현대적 감각이 뚜렷한 수필
은 기대할수 없을것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나이에 걸맞게 지나간
옛말이나 하시오가 아닌가싶었다. 나는 나대로 《도라지》를 돕겠
다고 약속한 이상, 글을 부탁받으면 글을 써야 하는데 남들의 글
을 흉내내면서 수필쓰기를 배우기보다는 나 혼자의 《추억의 고간》
에서 조금씩 끄집어내는것이 더 쉬울것 같기도 해서 그대로 응하
게 되었다. 그렇게 생긴것이 《도라지》의 《남계인생수필코너》
였다.

문학평론가 서영빈교수가 《만약 <도라지>잡지사의 간곡한 부탁이 없었다면 아마 그(남계)의 수필은 영영 이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했을것으로 짐작된다.》라고 간파했듯이 《인생수필코너》가 생기면서부터 나는 학문연구와 강의를 제외한 여유시간을 수필쓰기에 할애하면서 《도라지》가 초대 한 수필문학의 숲속에서 어렴풋한 옛 추억의 길을 따라 산책하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스피드시대를 살아가고있다.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르는 산업화와 도시화는 우리를 매일 더욱 바쁜 속도의 긴장속에 몰아넣고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것에 대해 너무도 빨리 그리고 쉽게 잊어버린다. 인생수필을 쓰면서 나는 가슴속 깊이 고이 간직되어있는 《추억의 고간》을 열어볼수 있었고 새록새록 보물을 찾아내는 기분으로 한편, 한편의 수필을 끄집어내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써온 문문만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다는 생각을 바꾸어 새로운 시작을 시도하는 초학자의 자세로 글쓰기에 림했다.

수필을 쓰면서 모든 초보자들이 쉽게 갖게 되는 정신적부담을 나도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 《내가 쓰고있는 글이 과연 수필인가?》 하는 의구심이였다. 그런데 행운이 나를 따라주었다. 첫 수필이 발표되면서부터 문단의 평론가들이 나를 부단히 격려해주었고 북경의 《삼지마을문학동호회》는 나의 수필작품토론회까지 마련해주었다. 《도라지》의 김홍란주필이 아니였다더라면 나는 수필을 시작하지 않았을것이고 여러 평론가들과 문학선배들의 격려가 아니였다더라면 나는 수필을 계속 쓰지 못했을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담은 수필이 《도라지》잡지에 발표되면서 다른 문학지들의 원고청탁을 자주 접하게 된 일이었다. 당초에 글을 시작할 때부터 《문학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없》(서영

빈)였기때문에 나는 내 이름이 문학계에서 알려지는것을 조금은 꺼리고있었다. 때문에 두번째 글이 나갈 때부터는 《남계》라는 호(号)로써 실명을 대체했다. 그런데 2002년 제5호부터 잡지가 글쓴이의 사진과 랍력을 게재하면서 나는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사진 대신 그림(자화상)을 제출했고 《남호손》이라는 새로운 필명을 만들어 사용했다.

이렇게 작품을 발표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감추려 한것은 자신이 민족학전공자라는 점을 의식하면서 작품을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 문학이라는 영역에서 나는 영원히 문외한이고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도라지》에 글을 발표할 때는 《내 제자가 내 고향에서 만드는 잡지》를 돕는다는 당위성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다른 문학지에까지 작품을 제출한다면 나는 《문학의 성지》를 침범한 철면피한 《타업종 종사자》(김형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을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도라지》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있다.

문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지켜주는것이 아니겠는가고 생각한다. 삶이 힘들고 고단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넉넉치 않으면서도 삶의 벼랑끝에 몰린 사람들의 불행과 절망을 리해해주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삶이 풍요로와질수 있고 인간답게 살아갈수 있다. 인간의 삶은 돈, 권력, 명예 같은것으로 쉽게 행복해질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점과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문학인들은 독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나는 그러한 취지로 글을 써왔다.

이 책은 2001년 제3호부터 《도라지》에 게재되었던 글을 모은것이다. 책의 제1, 제2, 제3부분은 《남계인생수필》에 발표되

있던것이고 제4, 제5, 제6부분은 차례로 사랑, 인간관계, 민족 발전에 관한 글들이다. 제7부분은 수필공부를 하면서 《수필은 이런것이지 저런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노트였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 개인의 수필을 배우기 위한 공부의 방법이였지 누구의 글을 평론하기 위해 쓴것은 아니다. 제8부분은 2002년 한국의 《중국경제》신문에 개설되었던 나의 칼럼코너 《천안문론단》에 게재되었던 글에서 선택한것이다. 칼럼을 시작한지 석달만에 다시 미국을 가게 되어 붓을 쥐게 되었다.

제9부분은 이 책의 출판을 위해 글을 써준 문학평론가 오상순교수의 서평과 《도라지》 2005년 제5호를 위해 《작가가 만난 사람》을 쓴 소설가 장경숙님의 글을 함께 모아보았다. 두분의 문학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제10부분은 북경의 《삼지마을문학동호회》가 2003년 세말에 조직했던 나의 수필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글(《도라지》 2004년 제1호에 게재됨)들과 그동안 나의 부족한 글들을 론평해주고 격려해주었던 문학선배님들의 글들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모았다.

마지막으로 나의 글이 나갈 때마다 편지나 메일로 격려해주시고 편달해주신 문학선배님들과 여러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민족출판사와 책임편집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2005년 8월

저자

남호서재에서

■ 차례

□작가의 말・수필문학의 숲을 산책하다 ... 2

1...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면 ... 2

군감자와 《이바구》 ... 7

가슴속에 새겨진 할머니의 초상 ... 11

옥년이와 붓나무 ... 15

가난이 선물하는 삶의 지혜 ... 22

2...

첫사랑 이야기—하나 ... 28

첫사랑 이야기—둘 ... 33

내가 만들었던 눈사람 ... 38

《잔인한 달》, 4월을 보내면서 ... 42

태항산기슭에 핀 들국화 ... 48

3...

택호 ... 54

이름도 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 59

오늘의 삶에 충실해야 ... 66

이순의 인생 ... 71

남자, 술 그리고 약속 ... 76

4...

사랑의 언어학 ... 84

사랑의 민족학 ... 89

사랑의 사회학 ... 94

사랑의 신화학 ... 99

상혼(商魂)에 절여진 사랑의 축제 ... 105

5...

고슴도치도 0거리접촉을 한다 ... 112

군자의 교제는 물처럼 담담하고 ... 117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 120

눈물없이 읽을수 없는 사랑이야기 ... 123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 127

6...

- 선택 ... 132
- 오늘도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 136
- 원일 아침 수상록 ... 139
- 《오동나무》를 심자 ... 147
- 순백의 꽃 《도라지》 ... 150

7...

- 잘못 채워진 컷 단추 ... 154
- 수필과 보고서 ... 158
- 수필과 진실 ... 163
- 술과 수필이 만난다면... ... 168
- 문화의 상대성과 수필 ... 174

8...

- 《박대정심(博大精深)》의 대륙적기질 ... 182
- 중국문화의 다양성 ... 185
- 노랑, 빨강과 중국인 ... 188
- 중국사람과 수자 ... 191
- 글로벌 에티켓과 중국인들의 예절 ... 194
- 중국인들의 욕과 한국인들의 욕 ... 198
- 수교 10년 ... 202
-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라 ... 206

9...

오상순 · 깨달음의 미학, 학자수필의 매력 ... 210

장경숙 · 생명의 원색 ... 235

김홍란 · 영원으로 뻗은 꿈의 길 ... 251

10...

서영빈 · 리성의 혼 자유의 옷 ... 266

장춘식 · 정체성과 삶의 참의미 ... 275

윤해란 · 여운의 아름다움 ... 288

김 훈 · 인간의 향기와 철학이 있는 글 ... 290

최순희 · 흑백사진과 컬러사진 ... 292

남영도 · 인생달관자의 여유 ... 294

전경업 등 · 단평 ... 295